

■ 가출 청소년들 어디로 가나...

범죄·탈선의 늪 '허우적'

출어머니와 살고 있는 김모(17)군은 집을 나와 찜질방에서 전전하던 중 지난 8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오토바이를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와 합의한 뒤 풀려난 김군은 집에 들어갔지만, 또다시 집을 뛰쳐나왔다. 어머니의 잔소리 때문이었다.

광주·전남 을 1천 여명...해마다 급증 쉼터 등 시설·프로그램은 크게 부족

광주·전남 가출 청소년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면서 탈선과 범죄가 날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보호하고 다시 올바른 길로 돌려보내는 보호시설과 체계적인 교화 프로그램 등이 턱없이 부족해 다양한 사회 안전망이 시급히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출 청소년이 늘고 있는 만큼 청소년 범죄도 늘고 있는 추세다. 올 들어 11월 말까지 광주에서 발생한 청소년 범죄는 3천782건으로, 전년 3천11건에 비해 25% 증가했다. 전남도 지난해 3천380건에서 올해 3천778건으로 11% 늘어나는 등 최근에는 4천 건에 육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경찰이 검문·검색을 통해 귀가시킨 청소년은 지난해 995명, 올해 1천97명이다. 대부분 일선 지구대에서 PC방과 유흥업소 검문 과정에서 신원을 파악, 돌려보내고 있다. 하지만 귀가를 원치 않고, 청소년 쉼터 등 보호시설을 이용하면서 다방·술집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범죄 유혹에 빠지는

중이며, 2곳은 법무부 산하에서 운영하고 있다.

올해 이곳을 다녀간 가출 청소년들은 1천500여 명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이곳에는 20명의 담당 교사들이 가출 청소년의 교육과 상담을 맡고 있다.

가출 청소년들은 대부분 '청소년 일시쉼터'(1388 구조센터·광주시 남구 월산동)에서 하루가량 머문 뒤 도움이 지속적으로 판단될 경우 중장기 쉼터로 옮겨져 1주일~1년 이상 머물면서 학업·각종 자활 프로그램 등을 배우게 된다. 건강검진·성교육·금융교육·각종 문화활동도 이뤄지며, 본인이 원하면 검정고시 등도 준비할 수 있다.

사회 안전망 확대 시급

그러나 매년 가출 청소년들이 급증하면서 프로그램 운영 교사와 시설 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백지 청소년 쉼터'의 경우 지난해 54명이 다녀갔지만, 올해는 79명으로 46.3%(25명)가 늘었다. '어깨동무 쉼터'(남자)와 YWCA쉼터(여자)도 369명에서 439명으로 19%(70명) 늘었다.

'어깨동무 쉼터' 선운호 사무국장은 "청소년들을 더 받고 싶어도 규정상 1주일이면 내보내야 하는데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이 어딜 가겠느냐"며 "편법이지만 일시쉼터에 하루 정도 머물다가 다시 들어오는 방법 등을 쓰고 있다"고 시설 확충을 바랐다.

/이은미·김필성기자 emlee@



태안으로 갈 현욱·현수막

광주시 북구청 직원 900여 명은 17~18일 충남 태안반도 원유 유출사고의 방제 작업을 돕기 위해 '현욱 모으기' 운동을 벌였다. 수집된 현욱 1만 점과 폐 현수막 500개는 18일 태안군청에 전달됐다. 앞서 북구청 직원 100여 명은 지난 13~14일 태안 신두리 해수욕장에서 기름띠 제거작업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700억대 고의부도 화순 모 건설 수사

1,800억대 어음 발행

허위 공사계약서·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뒤 어음과 함께 금융기관에 제출, 이를 할인받아 회사를 운영하다 수백억원대의 고의부도를 낸 건설회사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8일 불법 용통 어음을 할인, 자금을 조성해 회사를 운영해오다 최근 700억 원대의 부도를 낸 화순 G건설회사에 대해 사기 혐의의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G사는 협력업체·회사 등과 미리 짜고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와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해 어음과 함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어음을 할인을 받아 그 자금으로

회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용통어음은 신용질서를 교란시킨다는 이유로 금지돼 있으나 G사는 협력업체 등에 추후 하도급 공사 수주를 대가로 이들과 사전 공모해 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G사가 이 같은 방법으로 발행한 어음은 올 한해에만 870차례, 794억원에 달하고 2004년 11월부터 지난해 13일까지 할인규모는 1천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G사가 남발한 용통어음을 제때 막지 못하고 어음을 결제하기 위해 연리 200%에 달하는 사채까지 사용하다 금융비용이 누적돼 부도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회사 핵심관계자들에 대해 출구금지 조치를 취하고, 회사 장부

▲용통어음(融通, accommodation bill)=정상적 상거래의 뒷받침 없이 단순히 일시적인 자금의 용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행되는 어음. 용통어음으로 조달한 돈을 시설 투자나 부동산 구입 등에 쓰는 기업이 많다. 부도 위기설이 도는 업체의 경우 용통어음의 만기 연장이 되지 않으면 급격히 자금압박을 받게 된다.

국악관현악단장·단원 등 계좌추적

경찰 채용비리 수사

광주 시립국악관현악단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광주 북부경찰은 18일 관현악단 이모(46) 단장을 비롯, 지난 2004년 이후 신규 채용 단원 윤모(여·40)씨 등 6명과 이들 가족 등 12명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이들이 K은행 등 금융기관에 개설해 놓은 136개의 계좌추적을 통해 관현악단 채용과 관련해 이뤄졌

을 것으로 보이는 거래 내역을 상세히 조화, 실제로 금품을 주고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이들이 자기앞수표를 건넬 수 있는 점으로 미뤄 이들 금융기관에서 보관 중인 자기앞수표 마이크로 필름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필름을 조회키로 했다.

경찰은 2004년 이후 채용된 단원 15명 중 5명이 단장이 초빙교수로 있던 대전 모 대학교 출신인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종형기자 golee@

짜퐁 운동화 판매 2명 검거

전남지방경찰청은 18일 해외 유명 스포츠 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해 만든 '짜퐁' 운동화 등을 시중에 판매한 신모(50·부산시)씨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부산시 북구 구포동에 비밀 창고를 마련해 놓고 미국의 나이키, 독일의 퓨마·아디다스 등 유명 스포츠 브랜드의 상표를 붙인 '짜퐁' 운동화와 슬리퍼 7천300켤레(시가 9억5천만원 상당)를 불법 보관한 혐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애인 남자친구 폭행 치사

목포경찰, 30대 구속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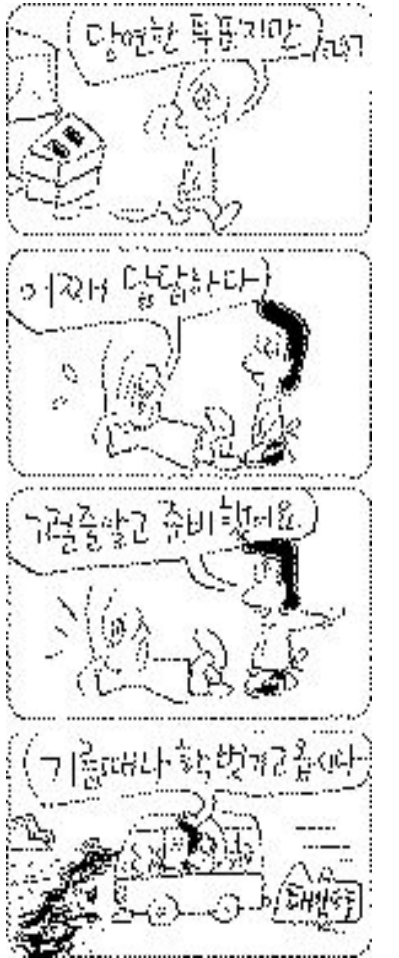
목포경찰은 18일 양다리를 걸친 애인의 남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신모(33·목포시 상동)씨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18일 새벽 1시께 애인 박모(여·43)씨가 운영하는 목포 P 미용실에서 박씨를 폭행한 뒤, 신씨가 박씨의 머리를 두세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에서 신씨는 "M씨가 나를 미용실로 불러내 박씨와 헤어지려 하며 수차례 폭행하고 '죽이겠다'는 말을 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 둔기로 때렸다"고 진술했다.

/목포=이상희기자 lsh@

Advertisement for '전립선 비대증-KTP 레이저 신장 요관결석-충격파 쇄석기' (Prostate Enlargement-KTP Laser Kidney Stone Shockwave Lithotripsy) with contact information: (062) 233-5119.

나원침 (7387) 김장두



Advertisement for 'DS건설(주)' (DS Construction Co., Ltd.) and '(주)본드나리' (Bonda-nari Co., Ltd.) with contact information: (062) 233-5119.

10대 2명, 초동생 집 따라가 절도

○광주 북부경찰은 18일 귀가 중인 초동생의 뒤를 따라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이모(16·중퇴)군 등 10대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 달 20일 오후 북구 동림동 S아파트 집 앞에서 학원을 마치고 돌아간 조모(9·모 초등학교 2년)군에게 "집에서 전화 한 통만 쓰자"며 따라 들어가 안방에 있는 15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몰래 가져갔다.

○이군은 3개월 전 가출 후 시내 찜질방 등에서 생활해 왔으며, 빈집 등에서 모두 6차례에 걸쳐 50여 만원을 훔쳐 생활비로 써왔다고.

○이들은 북구 H사우나에서 나온 중 S아파트 CCTV에 찍힌 화면을 토대로 탐문 수사를 벌인 뒤 경찰에 검거.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광주 마카오 직항 전세기' (Gwangju Macau Direct Flight Charter) featuring flight schedules,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동·서양 문화의 동행 비제온'.